비경 끝 극락 꿈꾸는 자리



바람도 머문 곳, **암자**

① 경남 산청 정취암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 wanihollo@hanmail.net

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각자의 '자리'가 있다. 꽃들이 피고 져온 자리, 새들이 살아온 자리, 숲이 지켜온 자리, 중생이 걸어온 자리, 깨달음으로 가는 불보살의 자리 등 그 자리는 자리마다 불가설불가설전의 시간과 무궁무진의 까닭으로 있어온 인과의 설법이다. 그 자리 하나하나에 깃든 시간과 까닭의 끝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니 옮기는 자리마다 더욱 깊은 시간과 더욱 선명한 까닭 속에 있어야 하리라. 그 뜻이 쉽지 않음으로 우리는 길과 길 사이에 불전을 세우고, 산기슭마다 불보살을 모셔왔다. 그 길과 산을 잇는 불보살의 자리를 찾아 쉽지 않은 뜻에 다가가 본다. B2면에 계속

B3

박지산의 정진의 길, 시코쿠를 걷다
순례길서 만난 인연들

B5

문화
노재학 사진전
한국산사의 단청문양과 사찰벽화의 美

B6

학술 · 문화재
불교사회연, 3.1운동 자료집 발간